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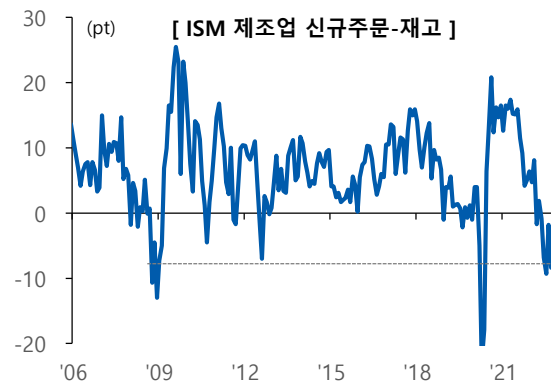


먼저 확인된 10월의 분위기

1. 지표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선진국

- 10월 주요 선진국의 경기상황을 선행적으로 집계하는 지표들이 발표.
- 독일의 10월 ZEW 경기기대지수는 -59.2pt, 현재평가는 -72.2pt로 재급락.
- IMF는 2023년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-0.3%로 역성장 제시.
- 미국의 10월 뉴욕 제조업 지수는 -9.1pt로 재하락. ISM 신규주문-재고 지수는 82년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.

10월 마이너스권을 유지한 뉴욕 제조업 지수.
신규주문-재고 지수는 부진 지속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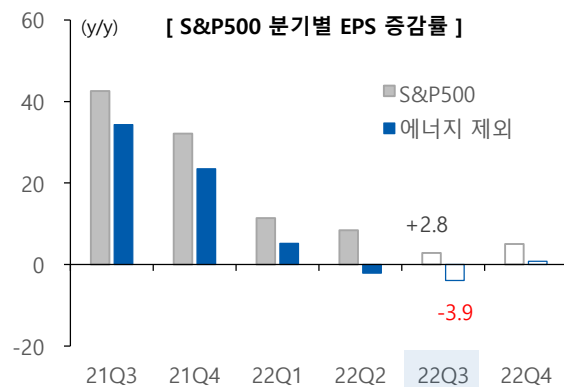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2. 표면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3Q 실적시즌

- 10월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+5.1%로 상승. 근원 CPI에서 보인 물가 압력 재확인. 12월 +75bp 인상(→4.75%) 확률은 78.5%로 상승.
- 3Q 어닝시즌은 은행이 예상 상회하는 실적 발표. 그러나 S&P500의 3Q EPS 증감률은 -5.6% 기록 중.
-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S&P500의 3Q EPS 증감률 추정치는 -3.9%. 2Q -2.1% 대비 부진.

양호해 보이는 S&P500의 3Q 실적.
그러나 에너지 제외 시 역성장이 심화될 전망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1. 지표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선진국

10월 주요 선진국의 경기상황을 선행적으로 집계하는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다. 물가 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독일의 10월 ZEW 경기기대지수는 -59.2pt, 현재상황평가는 -72.2pt로 재차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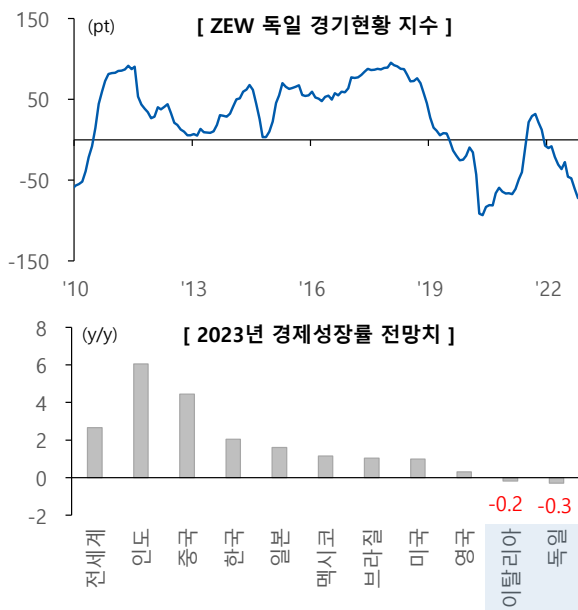
IMF는 10월 수정경제 전망을 통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이 유럽 에너지 위기의 영향을 크게 체감할 것이라 지목했다. 독일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7월 대비 -1.1%p 하락된 -0.3%로 제시되었으며, 이는 러시아(-2.3%), 칠레(-1.0%)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.

미국의 경우 10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-9.1pt로 발표됐다. 전월대비 -7.6pt 하락한 것이며 컨센서스 -4.3pt 역시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. 9월 ISM 제조업 지수도 2년 4개월래 최저치(50.9pt)로 하락한 바 있다.

ISM 제조업 신규주문-재고 지수는 미국 제조업에 대한 주문이 급감하고 재고가 쌓이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 제조업 경기에 선행성을 보이는 9월 신규주문-재고 지수는 -8.4pt로 1982년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.

[차트1] 10월 추가 하락한 독일의 심리 지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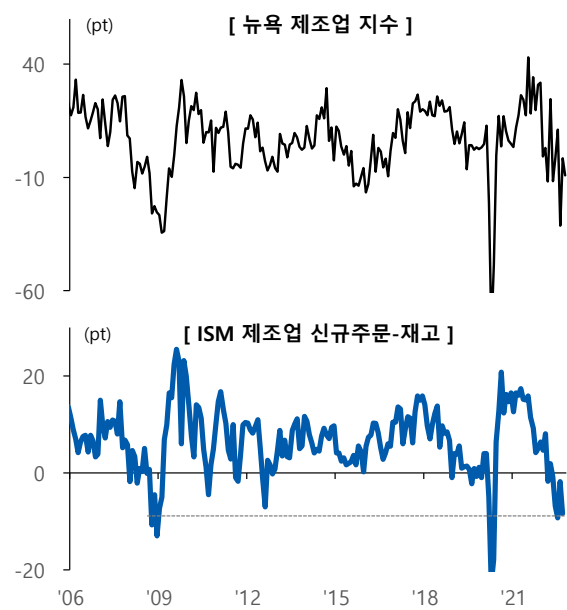
IMF는 2023년 독일 경제의 역성장 전망을 제시.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2] 10월 마이너스권을 유지한 뉴욕 제조업 지수.

신규주문-재고 지수는 부진 지속을 시사.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2. 표면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3Q 실적시즌

미국의 10월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(1년)은 +5.1%로 전월 +4.7%에서 재차 상승했다. 9월 근원 CPI에서 보인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부진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두번의 추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공고화 되는 양상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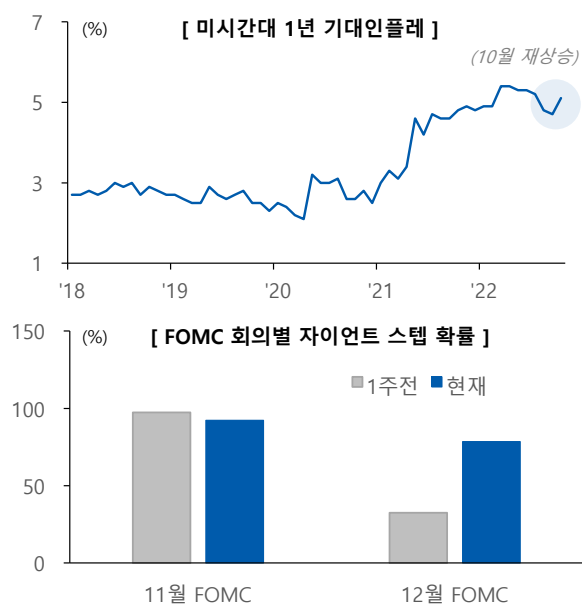
Fedwatch의 11월 +75bp 인상(→4.0%) 확률은 92.3%, 12월 +75bp 인상(→4.75%) 확률은 78.5%를 기록하고 있다. 이는 9월 점도표에 제시된 연말 금리 4.5%를 넘어서는 수준으로, 연준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S&P500의 3분기 실적은 은행주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시즌이라는 평가를 표면에 얻고 있다. 그러나 실상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3분기 EPS 증감률은 -5.6%로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.

S&P500의 3분기 EPS 증감률 전망치는 최근 +2.8%로 하향됐고, 에너지 섹터를 제외할 경우 -3.9%로 추정되고 있다. 이는 부진했던 2분기 EPS 증감률인 +8.4%, 에너지 섹터 제외 수치인 -2.1%를 하회하는 수준이다.

[차트3] 10월 재상승한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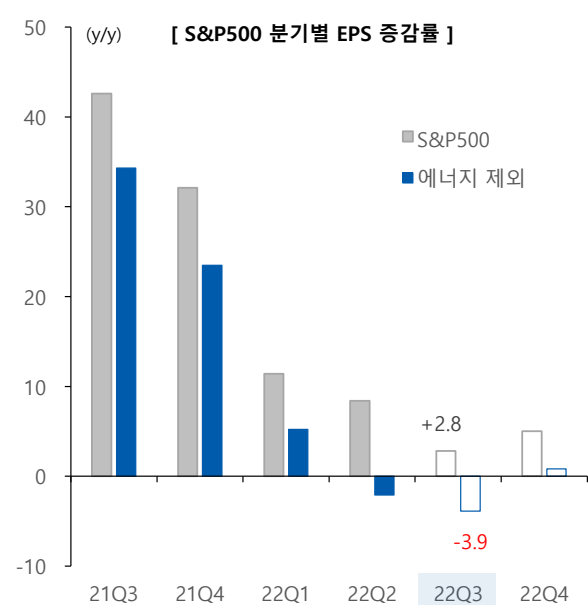
12월 자이언트 스텝 확률은 78.5%로 상승.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4] 양호해 보이는 S&P500의 3Q 실적.

그러나 에너지 제외 시 역성장이 심화될 전망.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